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4월 13일
(월요일)

동북일보 6면

“공무원에게 부담주는 5급 승진 시험 폐지해야...”

유인애 의원
(새누리당/번1·2동, 수유2·3동)

유인애 의원은 강북구에서는 5급 승진을 위해 행정법과 선택 1과목으로 승진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서울시 25개 구청중 강북구, 종로구, 마포구만 승진시험제도가 있고 다른 구청은 폐지했으며, 인근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도 폐지했는데 강북구만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시험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강북구는 5급 승진을 하려면 이러한 자격시험제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의원은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5급 승진시험제도의 폐지를 요청한다. 강북구는 타구에는 없는 봉황각 3.1운동 재현, 4.19혁명국민문화제, 강북청결 등 강북구를 위해 공무원들이 평소에 업무와 관

련해 피곤해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과도한 절차를 두어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업무에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북구는 타구보다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할 일이 산적해 있어 주민과 구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임무는 중요하다. 특히 신체의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6급 공무원들의 심적, 육체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주민들에게 충실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타구에서도 폐지된 5급 공무원 승진 자격시험제도를 폐지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